

[구AY-03] '2009 세계 천문의 해'(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):
아마추어 천문 단체 및 지방 천문 과학관의 기능과 역할

세계천문의 해 준비 TF 팀 (발표자 : 이서구)

한국천문연구원

한국천문연구원은 '2009 세계천문의 해(IYA2009) 준비를 위한 Task Force팀(이하 TF팀)'을 운영하고 있다. IYA2009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학술 단체와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국내 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, 국공립 과학관, 지방천문 과학관, 각 지역 교육과학연구원, 청소년수련원 등을 연계하는 공공 부문 네트워크, 아마추어 천문 단체, 사설 천문대, 사설 과학관 등을 연계하는 민간 부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국내 행사를 기획 · 운영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.

TF팀은 '2009 세계 천문의 해' 국내 이벤트를 전시, 교육, 행사 및 학술회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하는 안을 기획하였다. 이 중 행사 부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천문 단체와 지방천문과학관이 역할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.

본 발표에서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천문과학관의 현황과 그 운영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. 이들 지방천문과학관은 '2009 세계천문의 해'에 진행될 여러 천문행사의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아울러 지난 2007년에 아마추어 천문 단체와 함께 진행한 '불을 끄고 별을 켜다'라는 천문행사를 소개함으로써 '2009 천문의 해'에 진행할 여러 행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.

[구AY-04]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관련시설 활용방안

이강환

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

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과천에 2008년 11월 개관 예정으로 새로운 국립과학관을 건설 중에 있다. 새로운 국립과학관(국립과천과학관)에는 과학관의 핵심 시설이 될 천문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. 지름 25미터의 대형 Planetarium(천체관)을 비롯하여, 지름 1미터 광학망원경, 지름 7.2미터 전파망원경, 그리고 다수의 태양 및 중소형 망원경들이 설치될 예정이다. 새로운 국립과학관에 설치될 천문관련시설 및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.